

외국인근로자 눈물 닦아주는 법률구조공단

임신 등 이유 부당한 해고로 폐인 임금 대리 소송

광주·전남 최근 5년간 3만1972명 1429억원 구제

타이완 국적의 서영화(여·32)씨는 코리안드림을 안고 2014년 봄 한국땅을 밟았다. 그는 광주에 자리를 잡았고 그해 7월에는 직장도 얻었다. 서구의 한 태양광 제조업체 경리였다. 그런데 1년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임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알고봤더니 임신은 필미였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서씨가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년 7월2일부터 2015년 7월3일까지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서씨 스스로가 6월29일자로 그만뒀다고 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없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달인 6월 임금 160만원과 7월 3일치 임금 10만6670원, 퇴직금 158만6750원, 해고예고수당 183만7440원

등 총 513만860원을 주지 않았다. 서씨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서씨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줬고, 공단은 소송에서 승소해 서씨의 체불임금을 받아줬다.

베트남 국적의 탕(33)씨도 마찬가지였다. 탕씨는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2013년 9월24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일했는데, 사업주는 두달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54만9340원을 떼먹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떼먹는 악덕 업주의 횡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가 소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구조한 금액만 최근 5년여간 1429억원에 달한다.

■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법률구조 현황

연도	건수	인원	금액
2011	3,782	5,682	197
2012	4,232	6,402	233
2013	4,078	5,837	232
2014	4,339	6,221	244
2015	5,103	7,830	320
2016.6.	3,434	4,990	203
합계	24,968	36,962	1,429

(단위:건·명·억원)
(자료: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받아낸 체불임금은 2011년 5682명에 197억원, 2012년 6402명에 233억원, 2013년 5837명에 232억원, 2014년 6221명에 244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지난해에는 7830명에 320억원으로 급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더 가파르게 6월말 현재 4990명에 203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6개월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1만명에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4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취업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공단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보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업주들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류기간이 끝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귀환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석대·입석대·규봉암·덕산너덜

국립공원 100경에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규봉암, 덕산너덜 등 무등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경관 4곳이 국립공원 100경에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경관 4곳을 국립공원 100경에 추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석대는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주상절리(돌기둥)로 병풍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빛이 반사되면 수정처럼 강한 빛을 내면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병풍'이라고 전해진다.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 1017m에 있는 주상절리로 반달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다른 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광석대·규봉암은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층층이 얹혀 있다. 마치 긴 탑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기묘한 바위들이 규봉암을 에워싸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들과 어울려 매우 아름답다.

덕산너덜은 무등산의 대표적인 너덜지형이다. 중봉에서 동화사터를 잇는 능선의 서쪽 사면 해발 350~700m에 발달해 있다. 너덜은 주상절리나 바위의 덩어리가 풍화 등에 의해 부서진 뒤 무너져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돌무더기를 말한다.

국립공원 100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 등 20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경관 100곳을 선정해 발표하는 목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리우올림픽 보다 수박올림픽

'수박마을'로 알려진 광주시 남구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월산4동 주민센터 앞 마당에서 '열매! 수박마을 수박올림픽'을 개최했다. '수박씨발기'에 출현한 어린이들이 수박을 먹고 남은 씨를 입에 머금고 뒤 함쳐 내뱉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든 학원, 교습비 옥외 공개 의무화

올해 안에 모든 학원은 학원에 들어가 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교습비를 출입구 주변 등에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

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 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해질 19:25 물결 14:16 물집 00:18

땀 줄줄~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6/36	보성	맑음	24/35
목포	맑음	26/34	순천	맑음	26/36
여수	맑음	26/33	영광	맑음	25/34
나주	맑음	24/36	진도	맑음	25/34
완도	맑음	25/35	진주	맑음	26/35
구례	맑음	24/36	군산	맑음	26/33
강진	맑음	24/35	남원	맑음	25/34
해남	맑음	24/35	홍산도	맑음	24/30
장성	맑음	23/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시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남서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남서	북동~동 0.5~1.0	서~북서	0.5
서부	남서	북동~동 0.5~1.5	서~북서	0.5~1.0
면해(사)	북	북동 0.5~1.0	북~북동	0.5~1.0

◇물때

	밀물	썰물
목21포5	08:02	01:17
	21:05	13:40
02여165402수	02:52	09:12
	16:40	22:54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25/36	26/34	25/33	24/31	24/31	24/31	24/31

◇생활지수

- 식중독
- 자외선
- 미세먼지

총장 선거 전남대, 직선+간선제... 29일까지 재투표 조선포

조선포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선출 방안을 내놓았다. 전남대도 총장 직·간선제 선출 여부를 구성원들의 재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사회가 향후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포 이사회, 수용 여부 주목 = 11일 조선포에 따르면 대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 16대 총장선출을 위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자협은 12일 오후 대학평의회에 안건을 상정,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법인 이사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대자협은 우선,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교수 76% ▲직원 13% ▲학생 7% ▲동창회 3% ▲기타 구성원 및 지역사회 1%로 정했다. 광주시장·시의회의장 등 지역사회 참여 인사의 경우 향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투표로 1·2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1·2·3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이사회가 참여하지 않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안 등도 포함됐다.

대자협은 특히 정관(25조)의 '특별 결의'로 의결한 '합의'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사회가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총장 선임 및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은 재직 구성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대자협 관계자는 "수시모집을 앞둔 학교가 입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총장 선거가 지연되서는 안된다는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특별 결의"로 합의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대, 구성원 재투표 = 전남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총장 직·간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투표에는 교수(84%), 교직원(12%), 학생(2%), 조교(2%) 등이 참여한다.

교수회는 지난 4월 전체 교수 1184명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묻는 투표를 실시, 투표에 참여한 1051명(88.8%) 교수 중 531명(50.5%)이 직선제 방식을 선택, 총장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대학측은 독자적인 간선제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았고 단선 농성 등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전체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달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